

고려대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광주·전남 대학가 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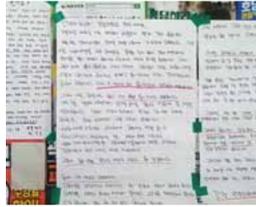
대학생들 사회 참여 관심 높아질까

전남대·조선대·목포대 등 "사회 무관심 반성" 잇따라 게시

"안녕들 하십니까?" 한 대학생이 국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학교 게시판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광주·전남 대학가에도 반향을 일으키며 확산하고 있다. 주현우(27·고려대 경영 4년)씨가 지난 10일 학교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붙인 뒤 전남대·조선대·목포대 등에서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로 시작하는 응답글이 릴레이식으로

주씨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듯, 김씨는 "저 멀리 서울에서 누군가 제게 안녕들하시냐고 물었다"면서 "네, 별 탈 없이 안녕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는 글로 시작했다. 그는 "국민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명 위기에 처하고 부정 선거 의혹과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삼시 잘 먹고 내 몸 누일 집 있으니 나는 안녕했습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안녕하냐는 질문에 스스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반성합니다"라고 쓴 뒤 "행동하려 합니다. 소리치려 합니다."고 썼다. 그는 15일 오전 자진해서 이 글을 떼어냈다. 전남대 도서관 앞 게시판(사진)에도 박정준 경영학과 09학번이라고 밝힌 이가 '우리 전남대는 안녕한가요?'라는 글을 올렸고 '경영 08 위길 북'이라고 밝힌 학생도 '안녕들 하십니까. 추운 겨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학교 게시판에 붙였다.



목포대에도 "1분 1분에 경제적 가치를 매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학업과 스펙이라는, 기성세대가 정해 놓은 틀에 스스로 맞춰 살며 안녕하다고 믿었다"면서 "그동안 현실에 안주했던 제 자신에게 빠져리도록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글이 내걸렸다. 한편, 주씨의 '안녕들 하십니까'에 호응하는 대학생 200여명은 지난 14일 고려대 후문에 모여 사회 참여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수강 학점제한제 시행' 유보 주장

전남대 총학, 교무처장실 입구 봉쇄

전남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대학 측의 '재수강 학점제한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며 대학 교무처장실 출입구를 봉쇄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조속한 봉쇄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다.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대신, 물리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다가 하면, 법적인 조치로 응수했다는 점에서 외부 시선이 곱지 않다. 15일 전남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30명은 지난 13일 학교측의 재수강 학점제한 제도 시행에 반발, 전남대 대학본부 교무처장실 출입문 봉쇄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봉쇄 당일에는 처장실 앞에서 연파 농성도 벌였다.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학생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재수강 학점제한 제도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제도 시행을 1년간 늦추고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봉쇄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대는 올 여름 계절 학기부터 B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재수강 때에도 최고 학점을 A 이하로 제한하는 '재수강 학점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봉쇄에 즉각 북부경찰서 용봉 지구대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또 16일까지 출입문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미용실의 산타' 성탄절(25일)을 며칠 앞둔 15일 광주시 동구 황금동 한 미용실 직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열고 난방' 단속 시작...1월 2일부터 과태료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16일부터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처음에는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 액수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던 지난 8월에도 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기를 트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한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민간 부문에 도의부적으로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권장 사항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습스

고속도휴게소에 첫 병원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의 의료시설인 안성맞춤의원이 생겼다. 이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있다. 진료시간은 토·일요일 포함 오전 10시~오후 8시며 월요일은 휴무다.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 피부과이며 환자는 진료료 약까지 받아갈 수 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4분 해질 17시 22분 달출 16시 42분 달몰 06시 13분

찬바람 생생
구름 많은 가운데 감기 걸릴 확률 높았다.

광주	구름많음	-2/6℃
목포	구름많음	-1/6℃
여수	구름많음	1/6℃
나주	구름많음	-4/5℃
완도	구름많음	0/6℃
구례	구름많음	-3/7℃
강진	구름많음	-2/6℃
해남	구름많음	-3/6℃
장흥	구름많음	-3/6℃
순천	구름많음	-1/7℃
영광	구름많음	-3/5℃
진도	구름많음	-1/5℃
전주	구름많음	-3/4℃
군산	구름많음	-2/3℃
남원	구름많음	-6/4℃
홍산도	구름많음	5/6℃

〈오전〉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치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오후〉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1:03 06:27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08:37 02:0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9 14:41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침기상청)

날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씨						
최저/최고	0/7	1/7	-2/5	-1/6	-1/8	-1/9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추진도 가능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교육,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만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도로명주소 시행 대비

민원전용 콜센터 운영

안행부(안행)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에 맞춰 민원전용 콜센터(☎1588-0061)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안행부 주소전환대책반은 종합상황실, 각 부처 주소전환대책반과 시·도 주소전환상황실은 상황대응반 체제로 운영된다. 주소전환대책반은 공공·민간기업·비영리단체의 도로명주소 전환과 안내 역할을 해왔으며, 비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문의와 후속조치에 대응하게 된다. 안행부는 앞서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 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고, 2040만 전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연합뉴스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5
	총계	3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 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자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www.kwangshin.ac.kr

www.newskorea.or.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3 뉴스저작권 보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답아가시게요?
뉴스에도 제값이 있습니다.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은 이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http://www.kdce.or.kr/user/news/main_news.do
 소중한 뉴스저작권 보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